

# 시 정 질 문 서

## 【백종훈 의원】

### 1. 초·중·고 각급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예산지원 관련

- 현재 부천시 소재 각급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7개교 중 20개교, 중학교 29개교 중 6개교, 고등학교 26개교 중 4개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전체 학교수 대비 약22% 수준에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소재 각급학교에 원어민 교사의 배치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내용은 전체규모면에서 약100억원으로 수원시(약 112억원)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약 6만 6천원으로 가평군 16만 8천원, 군포시 15만 7천원, 화성시 13만 7천원지원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면 경기도 평균 5만 5천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예산의 지원 내역도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중 체육 및 문화시설에 72.9%를 지원하고 시설투자 등에만 집중이 되고 교육을 위한 콘텐츠 특히, 원어민 교사 확보 등에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부천시에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의 육성, 사교육비의 절감,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만족감 제고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의 확충을 위한 부천시의 입장과 향후 지원대책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경비보조에 있어 시설투자 지원과 대등한 교육 콘텐츠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 괴안근린공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 개선 관련

- 괴안근린공원은 범박동과 괴안동지역의 경계부분에 위치하여 유일하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공원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괴안동 사거리에서 범박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상과 주택가 지역으로부터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야간에는 공원내 어두운 공연장 스탠드를 중심으로 탈선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우려가 증가 하고 있음.
- 이에 부천시에는 범박동과 괴안동 지역의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방향 안내 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으며,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종교단체와 청소년 단체 등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늘막의 설치와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토록 돔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괴안동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이용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 동남 사거리 인근 공터는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만 계획이 되어 있으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음.
- 범박동과 괴안동 지역은 문화시설 소외지역이라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으며, 관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교통의 불편과 시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 동남 사거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도서관의 기능이 포함되는 주민 이용 복합 문화센터의 건립을 제안 되리오니 시의 입장과 건립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